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비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대행스님

## 길을 묻는 이에게

제 629호 현대불교  
2007년 5월 23일(음력 4월 7일) 수요일 / 불기 2551년  
법공양 페이지

# B29

# 한마음의 불씨는 우주를 쓸어안고도 남음이 있어!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애써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주지 스님이나 여러 스님들한테 여쭙보시고 또 먼저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셔서 잘 지도 받기를 바랍니다. 주지 스님한테 여쭙보시면 초보심에 대해서 잘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제을리 하지 마시고 늙었으나 젊었으나 이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에 마음의 차원을 기르지 못한다면 그 모습은 또 좌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여직껏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나오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다는 것을 하다면 스스로 아실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그 한 티끌 같은 불씨가, 마음의 불씨가 아니었더라면 그렇게 사방천(四方)을 밝히고 오온이 스스로 밝아서 돌아가고 그러지 못하셨을 겁니다. 오온이 밝아서 스스로 돌아가니 칠보가 가득 차서 어디에도 손이 안 닿는 데가 없고 어디에도 발이 안 닿는 데가 없고 눈이 안 닿는 데가 없고, 나 아님이 없고 내 자리 아님이 없고 내 보물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는 거죠. 모든 일체 유생 무생(有生無生)을 조화로운 한 점의 상투 끝 동곳에 바로 그 빛을 가지시고 우리들한테 항상 비춰주시는데도 여러분이 몰라서 항상 그렇게 해매셔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이 우리 마음의 불씨를 밝혀서 그 줄을 잡으면, 그 줄을 잡는다는 것은 반야줄이라고도 하고 일심줄이라고도 합니다. 또 예전에 말씀하시는 여의주라고도 했습니다. 그 여의주를 잡지 못하면, 모든 걸 여의고 줄을 잡지 못한다면 금강주를 얻지 못한다는 얘깁니다. 금강주에 의해서 화광주나 서광주나 흑광주, 야광주, 이 다섯 가지의 광주가 한데 합쳐서 스스로 돌아가는데, 금강주를 얻지 못한다면 이 우주의 삼라만상 또는 보이지 않는 생명들, 보여지지 않는 모습들, 그 천차만별로 돼 있는 중생들을 한생각에 견지지 못합니다.

그렇게 오고 감이 없이 늙음하신 부처님의 뜻을 우리가 못 받고 있는 것은 부처님께서 49년을 설해 놓으셨어도 우리가 금강경 한 번을 제대로, 천 독을 했다 하더라도 그 말씀 첫머리, 중간, 꼬트머리 이 세 마디만 보면 벌써 다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천 독을 하고 삼천 독을 한다 한들 그건 헛 읽은 것입니다. 그런 걸 비유해서 한 번 얘기해볼까요?

여기에 지금 겹도 있고 안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경이다 컵이다 이러는 것은 이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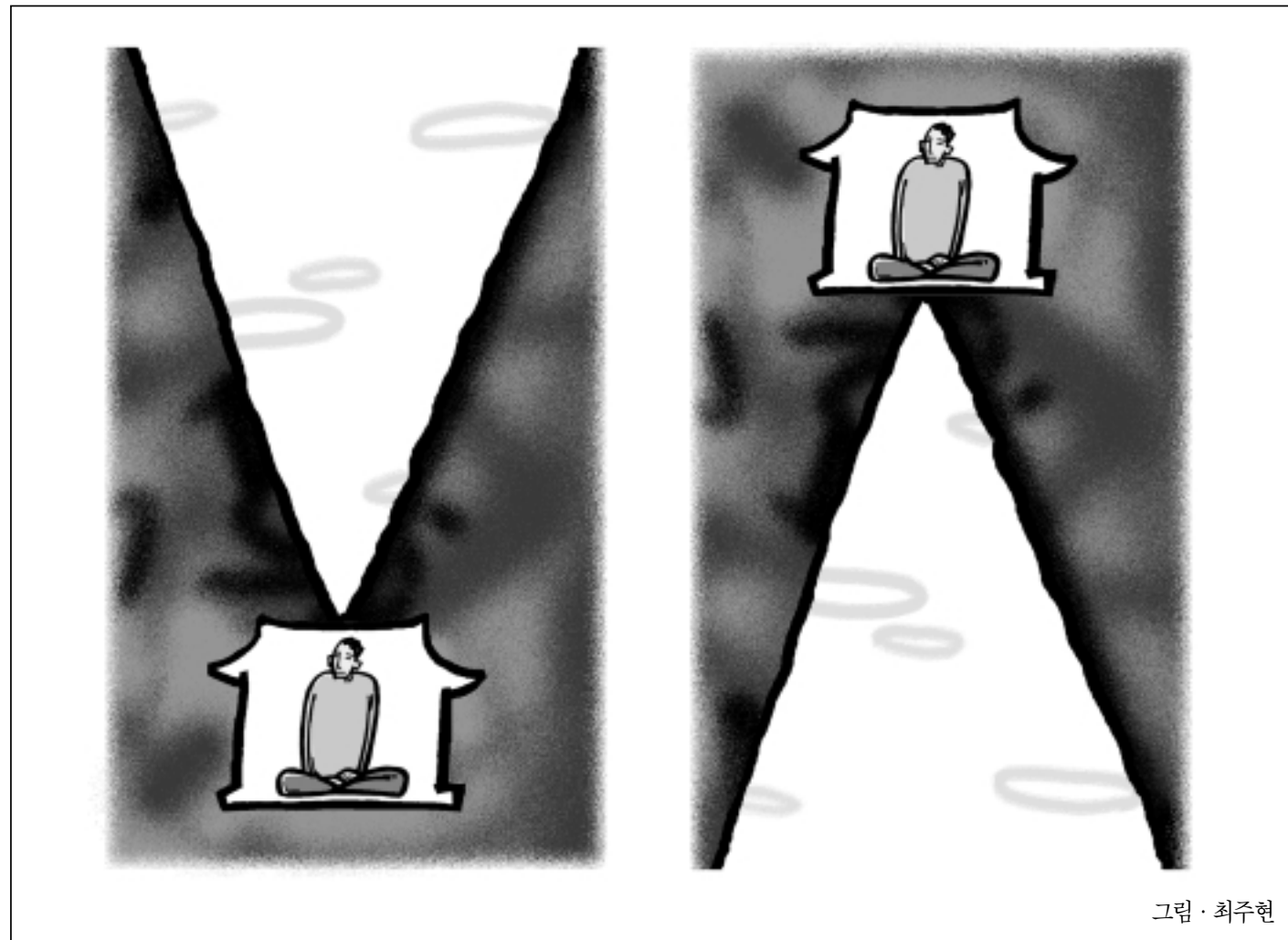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고 모습일 뿐이지 속의 진의는 무엇이나는 얘깁니다. 모습과 이름이 헛거가 아니지만 여러분 앞에는 헛거예요. 왜 헛거냐? 사람이 한번 생각을 잘 돌려서 그것을 깨달으면 그게 법륜(法輪)이 스스로 굴러서 바로 법의 양식이 되고 그대로 실상의 법의 도리가 되지만 그렇게 돌아가지 못하고 깨지지 못해서 항상 그거를... 그러니 중생이라고 부르고 사랑이라고 하고 또는 아무리 굴러려 해도 아니 되니까 자유인이 되지 못한다 이겁니다.

우리는 부처가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어떠한 것이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란 얘깁니다. 스스로 자기가 사람 되기 위함이고, 사람 노릇 하기 위함이고, 나와 남이 둘이 아님을 알기 위함이고,

나와 남이 둘이 아니게 나투기 위함이야. 그래서 공생(共生) · 공용(共用) · 공체(共體)로서 같이 돌아간다는 진리를 알기 위해서지 '우리가 무엇이 된다 안된다. 나는 이만큼 알았으니까 성문이다, 연각이다, 무슨 보살이다.' 이런 문제가 거기 붙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단, 그 한 티끌과 같은 한 불씨에 바로 금강주는 있는 겁니다. 오관을 통해서, 이 오관을 통하면 그것이 가고 옴이 없이 보는 천체망원경이니, 이런 문제가 거기에 붙어 돌아가죠. 항상 얘기하지요. 오신통(五神通)이라는 것은 지금 시체말로 이름들이 다양하게 붙었고, 전자에는 전자대로 오신통을 천안통(天眼通)이니 천이통(天耳通)이니 타심통(他心通)이니 속명통(宿命通)이니 또는 신족

통(神足通)이니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학이 발달이 돼서 과학적으로 나온 말 좀 보세요. 컴퓨터니 천체망원경이니 또 천체영사기니 책정기니 탐지기니 무선통신기니... 이것이 다 오관을 통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체말로 해도 전자에 있던 말과 똑같은 얘기죠. 그 말도 아니고 그 말도 아니고 바로 나한테 있다는 얘깁니다. 모두 각자, 나라고 손짓한다고 해서 나인 줄 아시지 말고 여러분 각자가 다 소수영영하게 갖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거론하지 않고 내가 그런 얘기를 한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다시 한 번 거론하겠습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오십 가지 물감과 종이 한 장을 놓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도 지금 한 장을 놓고 그림을 그리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십 가지 물감이 다 한 붓에 쓰여집니다. 물 그릇 하나를 놓고 찍고 씻고 또 씻고, 여러 물감을 쓰려면 씻어선 또 찍어서 쓰고 이렇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참 묘하지요.

그러면 진짜 물감은 어떤 걸까요. 또 진짜 물감이 없기 때문에 소수영영하게 찍어다 쓰면서도 하나 쓰면 하나 씻고, 하나 쓰면 하나 씻고 맹물에다가 연방 씻어가면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수영영하면서도 한 장에다 조화 있게 그려놓은 거를 누가 그랬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자기가 여러 가지를 그려놓고 자기가 그랬단 말을 어찌 하겠습니까. 또한 자기마저도 공(空)했어. 물감 오십 가지가 다 공하고 보니까 자기마저도, 그런 사람마저도 공했으니 어찌 '나'라고 할 수 있느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서 이루어진 것을 어찌 나만이 했다고 할 수 있느냐 해서 '애들아, 보겨라. 너희들은 그대로 공했느니라. 즉 공(空)이며, 즉 색(色)이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는, 그 단 두 마디 그걸 깨치지 못해서 우리는 해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나잘나 말을 하면서 행하면서 또, 바가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오관을 통해서 책정을 하는 거는 내 마음입니다. 이게 옳다 그르다 하는 거는 자기 한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디서 생겨났나? 여러분, 수많은 억겁을 거쳐 오면서 여러 생명들과 친우같이 동침했습니다. 한 마음 한뜻으로 동침가지고 이 몸품이라는, 한 인간이라는 선장이 선출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생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명도 많고 물질도 많습니다. 가지각색으로 생긴 것, 존중이니 세균이니 뭐 생김생김이 얼마나 다양하게 생겼으면서도 소임을 제각각 아주 정교하게 맡아가지고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정맥이니 동맥이니 하는 것도 다들 그렇게 다양하게 맡아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그 대표자인 선장은 누구냐? 여러분, 사람이라는 그 한 마디의 마음입니다. 한 점의 마음입니다. 그 생명이 한데 합쳐진 대표인 하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잘 이끌어가지고 나침반을 잘 봐서 책정을 잘해야만 오신통을 제대로 굴리는 겁니다. 오신통을 제대로 부린다면 어찌 내가 오신통에 말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오신통을 제대로 부린다는 얘깁니다. 그 오신통을 제대로 부려야 바로 거기에서

22면으로 계속

얼굴에 분 칠한 번 안 하셔도, 화려한 장신구가 달린 블라우스를 입지 않으셔도, 언제나 맑은 빛을 발하시는 단아한 모습처럼 스님의 시에는 그 어떤 치장도 보이지 않는다. 습작기 문하도들이 흔히 쓰는 시학 기법등의 기교도 없다. 오로지 정신, 활일의 경지에서 나오는 천상의 언어들만이 있을 뿐이다.

다 쓰고 난 후 갖고 다듬는 작업을 하시기보다는 무너가 예행연습 없이 글을 하여 중생의 한을 풀어주듯, 가슴속에 가득 담긴 불심의 언어들을 일필휘지로 풀어내시는데 있다. 막힘없이, 흐르듯 읽히는시!!



물질만능주의에 찌들고, 지쳐가는 모든 중생의 마음의 심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집을 꾸미게 되었다는 보덕스님, 지리산 함양에 위치한 건물사에 오늘도 한결같이 오가는 불자들에게 변함없는 메시지를 전한다.

정심보덕스님 저음  
신국판 양장본 / 119쪽 / 값 10,000원

판매처 055)962-3931 / Fax 055)962-3920 지리산 건물사(실상선원)

## 백련 앞에 청개구리

정심 보덕스님 詩集

천정무구의 부처님의 귀한 법문(백련)을 경청할때는 부처가 되었다가 돌아서면 중생되는 불자의 마음 자리(청개구리)를 시로 표현한 보덕스님의 명상시집.

